

유럽과 북미에서의 접경지대 연구 동향과 서사의 확장성*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 읽기

반기현**

1. 국경의 기억
2. 접경지대 연구의 개념들과 연구사적 검토
3. 세계화? 제국주의 담론의 변용?
4. 화해학을 위한 접경지대 연구

국문초록

이 서평논문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진행된 접경지대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그 서사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는 데 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공동연구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론 챕터와 접경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룬 짧은 결론 챕터 외에 총 10개 챕터로 구성된다. 이 챕터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접경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이제껏 접경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HK 연구교수

구를 선도해온 유럽과 북미(대개 미국) 학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지역과 대상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접경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축적된 성과들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특히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 소위 세계화라는 연구의 확장 가능성 또한 전망한다. 둘째, ‘접경지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물리적(physic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넘어, 개념적(conceptu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소개한다. ‘개념적 접경지대’의 사례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통치 방식, 종교, 경제, 사회제도, 가족, 노동, 공중보건, 젠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공동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용어 사용의 부재,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는 배경적 한계 때문인지 여전히 제국주의 담론 내에서 접경지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 따라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접경지대의 대부분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 접경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접경지대, 접촉지대, 변경, 경계, 분계, 국경, 변경 이론, 중간지대, 개념적 접경지대, 완충지대, 지정학, 신제국주의, 신식민주의, 로마제국)

1. 국경의 기억

“루마니아에서 망명한 후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자브뤼켄(Saarbrücken)에서 낭독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다음 날 국경

넘어 프랑스에서 아침식사를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까지 내가 알던 국경이란 총을 쓰는 군인들과 인육을 먹도록 조련된 개들이 있는 풍경이었지요. 매일 망명의 시도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곳이죠. 국경 근처 들판에는 서리나 무더위에 죽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 때 밭밭에서 늑골이나 찢긴 옷자락을 발견했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경에서 죽어갔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다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경우에 한해 죽은 사람들을 아연 관에 담아 집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관 값과 운구 비용은 고인의 가족들이 고인을 죽인 나라에 지불해야 했습니다.”¹⁾

200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타 뮐러(Herta Müller)는 『고향은 말하고픈 것이다(Heimat ist das, was gesprochen wird)』에서 ‘국경’을 죽음이 만연한 공포와 상실의 장소로 기억한다. 자브뤼켄은 독일 자를란트(Saarland) 주에 속한 도시로 프랑스와 맞닿아 있는 국경의 도시다. 쾰른 조약이 맺어진 룩셈부르크에서도 멀지 않다. 이 조약이 발효된 이래 유럽에서의 국경은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직후 우크라이나로 끌려가 강제 노역해야 했던 어머니의 고난을 간접체험하고 니콜라에 차우세스쿠(Nicolae Ceaușescu) 독재체제 하의 루마니아에서 엄혹한 시절을 보내야했던 뮐러에게 국경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국경’의 기억은 아마도 6.25전쟁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은 땅 위에 가시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1) 헤르타 뮐러, 『숨그네』, 박경희 역, 문학동네, 2018, 340-341쪽. 박경희가 인용한 헤르타 뮐러의 『고향은 말하고픈 것이다』의 문장을 재인용.

공간이자 자연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보존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무장지대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고도로 무장된 시설과 병력들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경계이기도 하다.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온 소위 '38파라지'들이 기억하는 국경은 밀리가 기억하는 국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국경의 근원이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어진 38선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제국주의 열강들이 민족에 대한 이해나 감각 없이 세계 곳곳에 그어버린 국경선처럼 한반도의 허리에도 선이 그어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DMZ는 국경선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곳은 양측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접경지대(borderland)'이다.²⁾ 동시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buffer zone)'이기도 하다. 사실 시야를 동북아로 확장시키면 한반도 자체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거에는 소련과 미국, 현재는 중국과 미국, 즉 *pax Sinica*와 *pax Americana*) 사이의 접경지대이자 완충지대이다.³⁾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대외적 문제들을 비롯해 심지어 사회적인 문제들조차도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진영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갖춰진 것이다.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회색분자 또는 '경계인'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특히, 최근 주변 강대국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서 국가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국경'이 강화되면서 진영논리와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접경지대와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접경지역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 1항.

3) 반기현, 『'접경사'의 정의와 연구 방법론의 적용』, 『중앙사론』 45집, 중앙사학연구소, 2017, 195-203, 207-208쪽.

‘접경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접경지대의 제 문제들은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상호배타적인 ‘국경’의 공간을 ‘접경지대’로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비극으로 점철된 20세기 ‘극단의 시대’⁴⁾를 겪으면서 초국가적 공동체인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창설됐고,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크레올 민족주의(Creole national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초문화주의(transculturalism),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등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담론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가치들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이었던 국경지역을 화해와 공존이 가능한 접경지대로 바라보게 하는 학문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유럽 학계에서는 독일과 주변국가들 간의 화해와 치유를, 미국 학계에서는 멕시코와의 접경지대에서의 화해와 치유를 목적으로 접경지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76년 설립된 범미국적인 ‘접경지대 연구학회(Association for Borderlands Studies)’는 이제 기존의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의 접경지대를 대상으로 그 연구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⁵⁾

이 서평논문에서 다룬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는 그러한 학문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⁶⁾ 접경지대 연구가 포괄하고 있는 다

4) E. J. Hobsbawm, *The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Abacus, 1995.

5) <https://absborderlands.org/about-2/> (2020년 5월 15일).

6) J. W. I. Lee & M. North (eds.),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양한 학문 분야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들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접경연구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연구사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책의 저자들이 소개한 다양한 접경지대의 사례연구들을 요약하고 그들이 미처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들에 대해 논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접경지대 연구의 성과들이 실제 접경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의가 매우 큼으로 그 담론과 서사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2. 접경지대 연구의 개념들과 연구사적 검토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는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출판부(University of Nebraska Press)에서 2012년부터 출간하기 시작한 〈접경지대와 초문화적 연구(Borderlands and Transcultural Studies)〉 총서⁷⁾의 일부로, 미국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UC Santa Barbara)의 고대 접경지대 연구 포커스 그룹(Ancient Borderlands Research Focus Group)과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대학(University of Greifswald)의 발트 해 연안 접경지대 국제연구 교육그룹(Baltic Borderlands International Research Training Group) 소속 접경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일궈낸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서론에 제시

7) C. Fojas & R. P. Guevarra Jr. (eds.), *Transnational Crossroads*,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2에서 A. Edgar & B. Frommer (eds.), *Intermarriage from Central Europe to Central Asia: Mixed Families in the Ages of Extremes*,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20까지, 총 17권 출간.

한 연구 목표는 “세계 각지의 접경지대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으로,⁸⁾ 서양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종교 등의 다양한 변화들을 포착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접경지대와 초문화적 연구> 총서 가운데 아메리카 대륙을 벗어난 접경지대를 다루고 있는 연구서들은 모두 이 책 이후에 출간됐다.⁹⁾ 그러나 이 책에 소개된 연구들이 진정 ‘세계화’라는 타이틀에 걸맞은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책의 편집을 주도한 존 리(John W. I. Lee)와 마이클 노스(Michael North)는 ‘접경지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접경지대는 물리적이고도 개념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접경지대는 국가나 제국 변경에서 벌어지는 군사적인 충돌에서부터 계급 간 종속 양식, 종교적인 믿음 또는 문화적 관행이 겹치는 지역,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적 분계선을 넘나드는 경제활동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과정들을 아우른다. 그러나 이 책의 챕터들은 그러한 개괄적·잠정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관행처럼 따라왔던 이론적인 접근을 지양하려고 한다. 우리는 접경지대의 공간을 규명하고 접경지대의 과정을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다루는 학제 간 논의를 진행하

8) J. W. I. Lee & M. North, “Introduct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1.
9) J. Ferguson, *Words Like Birds: Sakha Language Discourses and Practices in the City*,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9; L. A. Y. Welty Tamai, I. Dineen-Wimberly and P. Spickard (eds.), *Shape Shifters: Journeys across Terrains of Race and Identity*,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20; A. Edgar & B. Frommer (eds.), *Intermarriage from Central Europe to Central Asia: Mixed Families in the Ages of Extremes*,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20. https://www.nebraskapress.unl.edu/series/borderlands-and-transcultural-studies/?page_number=1 (2020년 5월 15일) 참조.

고자 한다.”¹⁰⁾

위에 제시된 ‘접경지대’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접경지대는 군사적인 갈등과 충돌만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제도, 문화, 종교에서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둘째, 접경지대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는 ‘개념적 접경지대(conceptual borderland)’가 존재한다. 심지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접경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방법론으로 접경연구에 접근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리적·개념적으로 접경지대는 이질적인 개체들의 교차지점에 놓인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대 연구에서는 “변경(frontier)”, “경계(border)”, “분계(boundary)”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종종 서로 혼동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경계 설정’이라는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리와 노스는 이 용어들 역시 정의하고 넘어간다. “변경”은 늘 이동하고 확장하는 정주지(定住地)의 주변부 또는 변두리 지역이다. 변경은 교전이나 충돌로 인해 바뀌기 쉽다. 상대적으로 “경계”는 정적인 형태의 구분으로, 인공적으로 건설된 경계석, 벽,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강이나 산맥, 자연지물 등이 될 수도 있다. 국가 간의 경계, 즉 국경(national border)은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행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분계”는 서로 중첩되어 보이는 문화, 사회, 윤리, 종교, 언어적인 영역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특성상 이러

10) J. W. I. Lee & M. North, “Introduct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2.

한 용어들의 통일성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연구자들의 상황, 필요, 흥미 등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이용 가능한 증거, 관심 있는 주제, 사용하는 방법론에 따라서도 접경지대에서의 역학관계와 과정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식의 여지를 남겨둔다.¹¹⁾

이 책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연구자들은 접경지대 연구가 사학사적인 관점에서 프레데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의 “변경 이론(frontier thesis)”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동의한다.¹²⁾ 터너는 유럽과 구별되는 미국만의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서부개척을 통한 변경의 형성이 미국만의 특별한 도전과 응전의 경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체성과 직결시켰다. 따라서 변경은 극복해야 할 ‘야만’으로 묘사됐고, 야만으로 낙인찍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제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미국사의 객체로 전락했다. 허버트 유진 볼튼(Herbert Eugene Bolton)은 접경지대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터너의 목적론적 역사관을 수정했다.¹³⁾ 미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적어도 원주민들이 협상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에도, 원주민들 상호간

11) J. W. I. Lee & M. North, “Introduct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2.

12) F. J. Turner,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The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1894, pp.199-227; F. J. Turner,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Henry Holt, 1920, pp.1-38.

13) H. E. Bolton, *The Spanish Borderlands: A Chronicle of Old Florida and the Southwes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21; A. L. Hurtado, “Parkmanizing the Spanish Borderlands: Bolton, Turner, and the Historians’ World”,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Vol.6 No.2, 1995, pp.149-167.

에 존재했던 교류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오래도록 진척된 바가 없었다. 마침내 1991년 리차드 화이트(Richard White)가 『중간지대(*The Middle Ground*)』에서 접경을 넘나드는 상호작용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¹⁴⁾ 화이트를 위시한 여러 접경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초창기 미국의 형성 과정에서 프랑스와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식민주의 열강들과 때로는 경쟁하기도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던 주체로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페카 하말라이넨(Pekka Hämäläinen)같은 학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미국사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요인으로 재인식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¹⁵⁾ 그가 연구한 코만치인들(Comanches)은 북중미 지역에서 스페인 공동체, 프랑스 공동체, 원주민 지역 공동체 등을 하나의 거대한 무역망으로 통합한 제국(Comanche Empire)을 만들었다. 2011년 하말라이넨은 사무엘 트루엣(Samuel Truett)과 함께 터너에서 현재에 이르는 접경연구의 연구사를 요약 정리했고, 접경지대의 역사는 향후 “넓은 제국중심 담론과 민족중심 담론”을 넘어서 원주민과 유럽에서 넘어온 이주민, 선교사, 상인, 행정관 등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프리카, 아메리카 사람들이 만나는 영역들도 다루는 “공간 유동성, 상황별 정체성, 지역적 우발성, 권력의 모호성” 등을 모두 고려한 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⁶⁾

한편, 유럽에서는 흥미롭게도 중세의 변경사회를 이해하는데 터너의

14) R. White, *The Middle Ground: Indians, Empires, and Republics in the Great Lake Region, 1650-18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5) P. Hämäläinen, *The Comanche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하말라이넨은 현재 <접경지대 초문화적 연구> 총서 담당 편집장이기도 하다.

16) P. Hämäläinen & S. A. Truett, “On Borderland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98 No.2, 2011, pp.338-352.

이론을 차용했다. 로버트 바틀렛(Robert Bartlett)은 유럽의 등장을 기독교 세계의 변경 확장에 따른 정복과 문화접변의 결과로 설명했다.¹⁷⁾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노라 베렌드(Nora Berend)나 데이비드 아블라피아(David Abulafia)같은 역사가자들이 변경이라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실재하는 변경과 상상 속의 변경(개념적인 변경)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¹⁸⁾ 특히, 아블라피아는 중세 유럽의 변경을 “인식 가능한 현상, 즉 확실한 사실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인 도구”로 이해했다.¹⁹⁾ 마이클 노스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중해 인근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았던 발트 해 연안 지역에 주목했다.²⁰⁾ 게르만인과 슬라브인 사이의 접경지대로 일종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은 11~13세기를 거치면서 제국주의 팽창과 군사 활동으로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토상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살아가던 에스토니아인, 라트비아인, 게르만인 사이에서 사회·문화적인 분계들도 나타났다.

마이클 베르너(Michael Werner)와 베네딕테 짐머만(Benedicte Zimmermann)은 ‘교차사(*histoire croisée*)’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접경지대에서의 문화전이 또는 접변 현상에 대해 연구했다.²¹⁾ 이들은 교차사가 양자 간의 전

17) R. Bartlett & A. Mackay (eds.), *Medieval Frontier Societies*, Oxford: Clarendon, 1992.

18) N. Berend, "Preface", *Medieval Frontiers: Concepts and Practices*, Aldershot: Ashgate, 2002, pp.x-xv; D. Abulafia, "Introduction: Seven Types of Ambiguity, ca.1100-ca.1500", *Medieval Frontiers: Concepts and Practices*, Aldershot: Ashgate, 2002, pp.1-34.

19) D. Abulafia, "Introduction: Seven Types of Ambiguity, ca.1100-ca.1500", *Medieval Frontiers: Concepts and Practices*, Aldershot: Ashgate, 2002, pp.4-5.

20) M. North, *The Expansion of Europe, 1250-150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2; M. North, *The Baltic: A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p.46-51, 104-110.

21) T. D. Kaufmann & M. North, "Introduction -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Europe and Asia, 1400-1900: Rethinking Markets, Workshops and Collections",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Europe and Asia, 1400-1900*, Michael North (ed.),

이뿐만 아니라 여러 동인들이 다양한 차원과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공간 속에서 다자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유용하다고 했다. 특히, 문화 교류 과정에서 교차하는 개인, 정치, 경제, 지식, 예술 간의 역학관계를 밝혀낸다고 주장했다. 에티엔 프랑수아(Étienne François)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파화 과정을 다루면서 교파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계(invisible borders)”를 다루었고 이들의 공존이 가능했던 종교적인 접경지대에 대해 연구했다.²²⁾ 이러한 중세 유럽의 접경지대들은 16~17세기 왕권을 중심으로 한 영토와 신민의 통일화 과정 속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국경이 등장과 함께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중세 유럽의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는 접경지대 연구에 두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국경’이 근대 이후에나 생겨난 개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변경이라는 공간, 또는 변경과 변경이 접하는 접경지대란 공간이 늘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공간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시킨 것이다. 이는 접경지대를 화해와 공존의 담론으로 풀어내기에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게 했다. 따라서 21세기에 활발해진 세계화와 통합의 과정 속에서 접경지대 연구는 탄력을 받았다. 특히, 유럽연합을 확대하자는 논의에서 비롯된 최근의 유럽 접경지대 연구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에서 고정불변의 민족적·영토적 접경지대는 의미를 잃고 사회적 유동성, 문화적 상호작용, 자유로운 월경(越境) 등이 보장받는 접경지대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서론에 인용한 헤르타 뮐러의 서슬파란 ‘국경의 기억’은 이로써 치유의

Aldershot: Ashgate, 2010, p.2.

22) É. François, *Die unsichtbare Grenze: Protestanten und Katholiken in Augsburg 1648-1806*, Sigmaringen: Jan Thorbecke, 1991; H. Schilling, *Early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and Its Political and Cultural Dynamism*,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8, pp.11-32.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리학자들도 경계와 접경지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안시 파시(Anssi Paasi)는 경계를 “세상을 창조하고 형성하는 상상”으로, 헝크 반 후텀(Henk van Houtum)은 경계 너머의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관행과 담론”으로 묘사했다.²³⁾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에 의거해서 점차 경계를 사회 교섭 과정의 결과물로 개념화했고, 그렇게 접경화의 과정이 집중 조명되었다. 반 후텀과 톤 반 내르센(Ton van Naerssen)은 ‘경계’라는 단어가 시공간 상에 고정된 장소들을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보다는 ‘경계화’라는 과정 또는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같은 정치학자나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같은 사회학자들도 ‘경계’나 ‘경계선’보다는 사회적으로 역동적인 공간이면서 과정에 따라 공간상의 구분이 재설정되는 ‘접경지대’를 강조했다.²⁵⁾

이처럼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접경지대 연구는 역사학, 종교학,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을 비롯한 분과의 경계마저 허물고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선도적인 융합학문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의 집필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 역

23) A. Paasi,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s”, *Borders and Border Politics in a Globalizing World*, P. Ganster & D. E. Lorey (eds.),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5, p.118; H. Van Houtum, O. Kramsch, and W. Zierhofer, “Prologue: B/ordering Space”, *B/ordering Space*, Henk Van Houtum et al. (eds.), Aldershot: Ashgate, 2005, p.3.

24) H. Van Houtum & T. Van Naerssen, “Bordering, Ordering and Othering”,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93 No.2, 2002, p.126.

25)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6; S. Sassen, “Bordering Capabilities versus Borders: Implications for National Borders”, *The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0 No.3, 2009, pp.567-597.

시 이러한 연구사적 토대 위에 접경지대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이 다루는 접경지대의 상황들은 “서로 다른 문화, 경제, 정치 공간의 면들이 만나거나 겹치는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감각이나 인식적이고 개념적인 감각에서도 발생하고 단일한 정치 단위나 두 개 이상의 정치체제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분계에서도 나타난다”.²⁶⁾ 다음 장에서는 이 책의 저자들이 연구한 다양한 접경지대의 사례들을 요약하고, 이 책의 담론과 서사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들에 대해 논한다.

3. 세계화? 제국주의 담론의 변용?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는 서양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종교 등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진단함으로써 반대로 ‘접경지대의 유지’가 갖는 이점을 드러나게 한다. 책의 구성 또한 국민국가의 정치적인 분계선이 미치는 영향력의 강화에 따른 ‘접경지대’에서 ‘국경’으로의 변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연대순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엘리자베스 드팔마 디지저(Elizabeth DePalma Digeser)는 접경지대의 개념과 모델이 고대 지중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⁷⁾ 그녀는 서기 3세기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26) J. W. I. Lee & M. North, “Introduct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7.

27) E. D. Digeser, “The Usefulness of Borderlands Concepts in Ancient History: The Case

(Origenes)를 ‘개념적 접경지대’의 사례로 제시한다. 플라톤주의 철학자이자 기독교도였던 오리게네스는 사후에 신플라톤주의자들과 기독교도들의 신학적 갈등이 극에 달하자 양쪽에서 반역자로 낙인찍히게 된 인물이었다. 디지저의 해석은 서양 고대사에서 접경지대라는 용어를 로마 제국의 변경이나 물리적·지리적 공간과 동일시했던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접경지대 연구 접근법이 서양 고대와 연관된 학문들, 즉 고고학, 고전학, 역사학, 종교학 등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어서 그렉 피셔(Greg Fisher)와 알렉산더 드로스트(Alexander Drost)는 후기 고대 시기(Late Antiquity) 로마제국의 주변부인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에서 벌어진 지역 엘리트층과 제국 권력층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한다.²⁸⁾ 이들은 제국의 행정이 베르베르계 엘리트층과 아랍계 엘리트층에게 관직을 할당하고 공인함으로써 간접적이고도 반자치적인 방법으로 제국의 변경을 지켜냈음을 밝힌다. 이렇게 인근 부족사회들과의 계속된 교섭이 접촉지역이면서도 완충지역인 일종의 접경지대를 형성했는데, 그곳에서 로마의 통제와 자율적인 자치가 어우러져 혼종적인 행정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로마제국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 변경의 부족사회들을 제국에 통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야 올스코프스키(Manja Olschowski)는 발트 해 남부 연안의 게르만 식민 지역과 슬라브 식민 지역 사이에서 처음으로 ‘경계(*Grenze*)’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토회 수도원의 종교·경제적 접경지대의 건설과 구조

of Origen as Monster”,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5-32.

28) G. Fisher & A. Drost, “Structures of Power in Late Antique Borderlands: Arabs, Romans, and Berbers”,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33-82.

에 대해 설명한다.²⁹⁾ 이곳의 시토회 수도사들은 권력의 공백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신앙생활과 함께 교육과 농사를 소개하면서 그 일대에 대한 재산권과 특권을 두고 이웃한 군주나 귀족들과 협상을 벌였다. 수도사들이 만들어낸 접경지대는 이러한 협상을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었고, 추후 일부 군주들과 귀족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그곳에 가문의 장지를 마련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앤 마리 플래인(Ann Marie Plane)은 17세기 말 뉴잉글랜드에서 유럽인들을 상대로 범 인디언 반란을 이끈 주술사 스완도(Squanto)에 대해 다룬다.³⁰⁾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할 하에 있던 메인(Maine)은 프랑스와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눈독을 들인 지역이었고 1676년 무렵에 이미 모피, 생선, 목재 교역망이 침투해 있었다. 북쪽에서는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들이 남서쪽에서는 영국 프로테스탄트 식민주의자들이 능동적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플래인은 스완도가 뉴잉글랜드 전역을 휩쓴 범 인디언 반란을 이끌면서 이들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에 일종의 종교적 접경지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주었다.

스테판 헤르푸르트(Stefan Herfurth)는 18세기 스웨덴 왕국의 독일 지역 내 속주였던 스웨덴 포메라니아(Swedish Pomerania)가 자유주의 경제와 장원 경제의 접경지대로, 문화전이가 나타난 지역이었음을 설명한다.³¹⁾ 이 지역에는 한 스웨덴계 관료 귀족이 통치하는 다수의 독일어권

29) M. Olschowski, "The Transborder Economy of Medieval Cistercian Monasteries in the Southern Baltic Sea Reg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83-103.

30) A. M. Plane, "Visionaries, Violence, and the Legacy of Trauma on the Maine Frontier during King Philip's War, 1675-1677",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05-133.

31) S. Herfurth, "Swedish Pomerania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인구가 있었는데, 이 귀족을 제외한 스웨덴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의 지적 전통이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길 바랐다. 18세기에 장원 경제라는 중세적인 관념의 재산 형태와 스웨덴 왕국의 계몽된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새로운 관념들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의 문화적 접경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코르트-헤닝 우버(Kord-Henning Uber)는 17~18세기 종교적 접경지대로 가능한 발트 해 남동부 연안의 쿠를란트 공국(Duchy of Courland)에서 벌어진 종교적 탈경계화 및 재경계화를 소개한다.³²⁾ 우버는 근대 초에 등장한 종교국가들이 고정된 정치적 경계를 갖는 하나의 동질적인 종교 공간으로 묘사되는 전형적인 역사서술 방식을 비판한다. 이 시기에 쿠를란트는 하나의 종교적 접경지대로, 루터교가 귀족과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탱하는 한편, 라트비아계 농민들은 이교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버는 이처럼 쿠를란트에서는 영토상의 경계가 상이한 종교들의 확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문화적인 경계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클린턴 F. 스미스(Clinton F. Smith)는 전형적인 서사 구도인 원주민대 식민주의자 담론에서 벗어나, 19세기 초 북미 지역에서 라코타(Lakota)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친족관계에 기반 한 원주민들 사이에서의 접경지대를 나타낸다.³³⁾ 이러한 원주민의 접경지대에서 부족 간 유대와

Frihet in a Borderland of the Baltic Sea Reg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35-154.

32) K. Uber, “The Duchy of Courland from 1650 to 1737: Transformation of a Religious Borderland in the Baltic Sea Region”,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55-177.

33) C. F. Smith, “Native Borderlands: Colonialism and the Development of Native Power”,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별했기 때문에 친족관계는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었다. 라코타인은 확장을 위해 필요했던 코만치 말들에 접근하기 위해 사이엔(Cheyenne)인과 아라파호(Arapaho)인과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을 맺었다. 반면, 외부인으로 설정된 크로우(Crow)인과 아리카라(Arikara)인은 전쟁을 통해 통합시키려고 했다.

베로니카 카스티요-무뇨즈(Verónica Castillo-Muñoz)는 20세기 초 멕시코 최북단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에서 벌어진 정부 주도의 이주 및 정착으로 인한 인종적으로 혼합된 노동자 공동체 형성에 대해 소개한다.³⁴⁾ 그녀는 멕시코 정부가 국경을 넘는 토착민들을 어떻게 제한하려 했고 동시에 남부 멕시코의 중국계 노동자와 메스티소 노동자들을 바하 칼리포르니아로 이주시키고 정착시켰는지를 논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주 형태는 바하 칼리포르니아 접경지대에서 인종적으로 혼합된 노동자 공동체가 형성되게 했다.

가브리엘라 소토 라베아가(Gabriela Soto Laveaga)는 1940~1950년대 멕시코 공중보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시와 농촌 간 가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활용됐는지 고발한다.³⁵⁾ 이 시기에 도시와 농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과 이전까지 불명확했던 관련 용어들이 정교해졌는데, 라베아가는 6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요구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79-192.

34) V. Castillo-Muñoz, “Beyond Red-Light Districts: Regional and Transnational Migration in the Mexican-U.S. Borderlands, 1870-1912”,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193-218.

35) G. S. Laveaga, “Medicalizing the Borders of an Expanding State: Physicians, Sanitary Reports, and the Frontiers of Mexican Progress, 1930-1950”,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219-231.

받은 멕시코의 의대생들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현대화된 멕시코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의료 접근성이 정부의 집권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면서 젊은 의사들은 “주변부 지역”과 “발전된 지역” 사이 어딘가에 경계를 그리게 되었고, 이는 국가가 인구를 규정하고 행동을 규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상의 경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올라 사순케비치(Olga Sasunkevich)는 유럽연합과 발트 3국의 경제적 접경지대에 대해 다루며, 특히 여성들이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간 접경지대 무역을 지배했음을 주장한다.³⁶⁾ 유럽연합의 확대가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간의 경계를 설정했지만, 이러한 국경들의 주변부 지역에서 지역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세 기업 활동이 협력을 촉진시켜왔다. 그녀는 특히,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간 접경지대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무역을 지배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젠더 구성이 접경지대의 상호작용에 끼친 영향을 강조한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의 집필진은 탁월한 전문성과 통찰력으로 서양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접경지대의 사례들과 특징들을 성공적으로 소개해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한계점 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편집자인 리와 노스가 서론에서 우려를 나타냈듯, 각 챕터의 저자들은 접경지대 연구의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물론, 이들은 서로의 연구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인용을 해가면서

36) O. Sasunkevich, “Theorizing the Social Functioning of Political Borders through Studies of Cross-Border Petty Trade”,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233-249.

서술을 했다. 그러나 ‘변경’, ‘경계’, ‘분계’같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어들도 각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사용했다. 이는 공동연구에서 흔히 드러나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이 책의 『세계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각 챕터의 주제들은 여전히 특정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디지저, 피셔, 드로스트가 수행한 후기 고대 시기 로마제국의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나 헤르푸르트의 스웨덴-포메리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라베아가의 멕시코 도시-농촌 간 공중보건의 접경지대에 대한 독특한 연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발트 해 연안 지역과 미국 및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접경지대 연구의 전 지구적인 세계화는 고사하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세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결론 챕터에서 향후 접경지대 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³⁷⁾ 셋째, 여전히 몇몇 연구들에서 ‘접경지대’의 형성을 제국주의적 팽창에 따른 ‘변두리나 ‘주변부’ 지역의 설정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서사와 담론은 ‘접경지대’를 충돌과 갈등으로 점철된 수동적인 공간으로 단순화해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스미스는 아메리카 원주민 대 유럽 식민주의자라는 북미사의 전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19세기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부족 간 관계형성 과정에서 접경지대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시각을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식의 설명이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칫 식민주의와 침략을 정당화 하는 논리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에 다소 우려

37) A. Drost & M. North, "Future Directions in Borderlands Studies"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251-255.

스럽다. 카스티요-무뇨즈도 기존의 미국인 대 멕시코인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바하 칼리포르니아라는 공간에서 투자와 이민을 통한 미국인과 멕시코인의 공존관계를 드러낸 점이 비상하다. 그러나 여전히 주도적인 미국인과 수동적인 멕시코인이라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접경지대란 어느 한쪽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인가? 라베아가와 사순케비치의 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와 보건, 그리고 젠더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경지대를 논하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도시의 확장(의료, 보건으로 상징되는 문명화)에 따른 농촌과의 구별과 그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내적 접경의 형성, 그리고 유럽연합의 확장에 따른 경제적 접경 형성을 다루고 있다. 모두 주체와 객체가 분명하고 주체의 팽창(제국주의적)에 따른 접경지대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 하겠다. 전통적인 제국주의의 담론에서는 벗어났지만 또다시 신제국주의 서사와 담론의 틀로 찾아들어가는 모습이다. 팽창에 뒤따르는 축소의 과정과 충돌과 갈등에 이은 해소의 과정은 필연적임에도 등한시 되었다. 실로 대등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화해와 공존의 접경지대는 없는 것인가?

4. 화해학을 위한 접경지대 연구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에 수록된 논문들은 어느 한 시기나 장소에 초점을 맞춰온 종래의 학문적 전통에서 벗어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의 접경지대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접경지대 연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물론, 핵심 용어와 개념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좀 더

적극적인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 작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제국주의 담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점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집필진이 자신의 특정 연구 분야를 보다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했고, 동시에 접경지대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의 범위를 넓혀가며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고자 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집필진과 편집진은 접경지대 연구에 착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고와 통찰, 그리고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두는 ‘혐오’이다. 한국사회는 갈등의 종합백화점이었다. 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까지 갈등 아닌 것이 없었다. 그나마 종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인가 싶었지만, 최근 COVID-19 창궐로 인한 방역 위기 상황 속에서 특정 종교나 집단에 쏟아진 공격과 비난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갈등이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혐오로 발전한다는 것은 진영논리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내부적으로는 협상과 소통의 책임이 있는 위정자들이, 외부적으로는 세계 질서 유지와 국제공조의 책임이 있는 신제국주의 국가들이 ‘확실한 내편 만들기’를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만연한 ‘혐오’ 정서를 평화와 공존을 위한 ‘화해’의 서사와 담론으로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의 연구들이 ‘화해학(Reconciliation Studies)’을 위한 마일스톤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Lee, J. W. I. & M. North (eds.),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2. 논문과 단행본

반기현, 『'접경사'의 정의와 연구 방법론의 적용』, 『중앙사론』 45집, 중앙사학연구소, 2017, 195-213쪽.

헤르타 필러, 『숨그네』, 박경희 역, 문학동네, 2018.

Abulafia, D., "Introduction: Seven Types of Ambiguity, ca.1100-ca.1500", *Medieval Frontiers: Concepts and Practices*, D. Abulafia & N. Berend (eds.), Aldershot: Ashgate, 2002, pp.1-34.

Adelman, J. & S. Aron,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04 No.3, 1999, pp.814-841.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6.

Anzaldúa, G. E.,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Aunt Lute, 1987.

Bartlett, R. & A. Mackay (eds.), *Medieval Frontier Societies*, Oxford: Clarendon, 1992.

Berend, N., "Preface", *Medieval Frontiers: Concepts and Practices*, D. Abulafia & N. Berend (eds.), Aldershot: Ashgate, 2002, pp.x-xv.

Bolton, H. E., *The Spanish Borderlands: A Chronicle of Old Florida and the Southwes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21.

François, É., *Die Unsichtbare Grenze: Protestanten und Katholiken in Augsburg 1648-1806*, Sigmaringen: Jan Thorbecke, 1991.

Hämäläinen, P., *The Comanche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Hämäläinen, P. & S. A. Truett, "On Borderland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98 No.2, 2011, pp.338-361.

Hobsbawm, E. J., *The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Abacus, 1995.

- Hurtado, A. L., "Parkmanizing the Spanish Borderlands: Bolton, Turner, and the Historians' World",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Vol.6 No.2, 1995, pp.149-167.
- Kaufmann, T. D. & M. North, "Introduction -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Europe and Asia, 1400-1900: Rethinking Markets, Workshops and Collections",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Europe and Asia, 1400-1900*, Michael North (ed.), Aldershot: Ashgate, 2010, pp.1-8.
- North, M., *The Expansion of Europe, 1250-150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2.
- _____, *The Baltic: A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 Paasi, A.,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s", *Borders and Border Politics in a Globalizing World*, P. Ganster & D. E. Lorey (eds.),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5, pp.117-136.
- Sassen, S., "Bordering Capabilities versus Borders: Implications for National Borders", *The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0 No.3, 2009, pp.567-597.
- Schilling, H., *Early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and Its Political and Cultural Dynamism*,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8.
- Turner, F. J.,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The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1894, pp.199-227.
- _____,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Henry Holt, 1920.
- Van Houtum, H. & T. Van Naerssen, "Bordering, Ordering and Othering",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93 No.2, 2002, pp.126-136.
- Van Houtum, H., O. Kramsch, and W. Zierhofer, "Prologue: B/ordering Space", *B/ordering Space*, Henk Van Houtum et al. (eds.), Aldershot: Ashgate, 2005, p.3.
- White, R., *The Middle Ground: Indians, Empires, and Republics in the Great Lake Region, 1650-18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Abstract

The Research Trend and Narrative Expandability of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 Review Article: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Ban, Kee-Hyun(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ad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to examine trends in border studies conducted so far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to discuss the expand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narrative.

It introduces a variety of case studies covering the borderland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t consists of a total of 10 chapters,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chapter to clarify the purpose and definition of the collaboration and the short conclusion chapter on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borderlands studies. This volume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urrent borderland research in two main respects. First, it can introduce us we the areas and targets that the leading researchers from European and North American academia (usually the United States') have paid attention to. It also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borderland research and predicts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study various border areas where exist in other regions (especially in Asia) based on accumulating academic achievemen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so-called 'globalization'. Second, it introduces the borderland as a conceptual space, beyond the border area as a physical space that is commonly thought of when it comes to 'border'. Cases of "conceptual borderlands" can be applied to a number of topics ranging from an individual's identities to the methods of governance, religions, economies, social institutions, families, labor issues, public health services and gender issues.

There are, however, also some questions to be noted in the volume: the lack of consistent use of terminology, which can be considered general problems of

collaboration studies; the fact that the authors still tend to understand borderlands within the imperialist discourse, perhaps because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is situated main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borderlands cases described here as the areas of conflict and struggle only. Nevertheless, the book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a possibility of various borderlands studies and helps us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geopolitical situation imposed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located on the borderland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Keywords: borderlands, contact zones, frontiers, borders, boundaries, national borders, The Frontier Thesis, *The Middle Ground*, conceptual borderlands, buffer zones, geopolitics, neo-imperialism, neo-colonialism, Roman Empire)

논문투고일 : 2020년 4월 17일

논문심사일 : 2020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20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5월 14일